

번호 I-11

제 목	국문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직무 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			
	영문	Professionalism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octor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강윤식 ¹ , 이상원 ² , 감신 ² , 천병렬 ² , 예민해 ² 1.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2.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문	Kang Yune Sik ¹ , Lee Sang Won ² , Kam Sin ² , Chun Byung Yeol ² , Yeh Min Hae ² 1. Dept. of Prev. Med.,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 Univ. 2. Dept. of Prev. Med.,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 Univ.			
분 야	보건관리 (○)	발 표 자	일반회원 (○)	발표 형식	구 연 ()
	역 학 ()		전 공 의 ()		포스터 (○)
환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집단특유의 직업의식을 발전시켜왔으며 대표적인 전문직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들은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자신의 지식에 대한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으며 소득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전문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적인 신뢰나 직업윤리의 측면에서 일반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의 특성은 객관적인 구조적 요인과 구성원 자신의 주관적 태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사들의 태도요인인 전문직업성은 구조적 요인에 비해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직무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의사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변화과정에 놓여있는 한국사회 의사들의 지위인식을 설명하고 향후 의사들이 자신의 직업적인 지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한 자료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대구경북지역 개원의 1781명, 전공의 563명, 봉직의 12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들 중 개원의 540명(30.3%), 봉직의 105명(83.5%), 전공의 289명(51.3%)가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직과 관련하여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및 행위적인 속성을 측정하는 전문직업성 척도, 저자들이 고안한 3개 요인(업무량 요인, 환자요인, 임상적 책임감/판단 요인) 9문항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직업만족도 및 이와 관련된 적성에 맞는지 여부, 전직희망여부 등과 취업형태, 업무관련특성 및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한 후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들의 지위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성 및 직업만족도는 높고, 직무스트레스는 낮을 것이다.

둘째, 의사들의 근무조건이 나쁠수록 전문직업성 및 직업만족도는 낮고, 직무스트레스는 높을 것이다.

셋째, 전문직업성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업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3. 연구 결과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1세였다. 의사지위전망에는 88.6%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전문직업성 평균점수는 개원의 3.40, 봉직의 3.35, 전공의 3.1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많을수록 전문직업성 점수가 높았으며, 근무조건이 나쁠수록 전문직업성 점수가 낮았다.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성 점수가 높았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임상적책임감/판단요인에서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전공의들은 업무량 요인에서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점수는 전공의들이 가장 높았다. 근무조건이 나쁠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개원의 55.4%, 봉직의 66.4%, 전공의 60.1%가 의사직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지위인식이 나쁠수록 의사직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았다.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전문직업성 점수가 높았고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낮았다. 구조분석결과는 대체로 단변량분석과 유사하였는데, 연령은 전문직업성에 정(+의 효과가 있었다. 개원의 대비 봉직의는 전문직업성 및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직업만족도에 대하여는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전공의는 전문직업성에 부의 직접효과,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직업만족도에는 정(의 직접효과와 부(의 간접효과가 있었다. 의사지위인식은 전문직업성에 부(의 직접효과,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직업만족도에는 모두 부(의 직,간접효과가 있었다. 근무시간은 전문직업성에 부(의 직접효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직업만족도에는 모두 부(의 직, 간접효과가 있었다.

4. 고찰

13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가 81%인 반면 봉직의 및 개원의는 12시간 이내가 90%를 넘어 전공의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였다. 지위전망에 대해서는 88.6%가 하락할 것으로 답하여 의약 분업 등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된 최근의 의료계 정서를 반영하고 있었다. 개원의 및 봉직의에서는 업무자율성 점수가 가장 높고, 전공의에서는 사회적 중요성 요인이 가장 높아 의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의사직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적 상호통제 점수가 가장 낮아 의사 집단 내의 상호평가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자들은 여기고 있었다. 전체 전문직업성 점수는 근무조건이 나빠질수록 낮아져서 업무조건이 열악할수록 전문직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었다. 자신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이 약함을 알 수 있었다. 개원의와 봉직의에서는 임상적 판단/책임감 요인 점수가 높은 반면, 전공의들은 업무요인 점수가 높아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을 시사함과 더불어 전공의들은 과중한 업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많을수록 전문직업성 점수가 높고 스트레스는 덜하였는데, 이것은 50대 이후의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의사에 대한 평가가 양호하고 경제적인 수입이 안정적이던 때 의사 생활을 보내 반면 젊은 의사들일수록 사회적인 압력이나 의료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등의 조건에 의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세 집단 모두에서 근무조건이 나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지위인식이 낮을수록 업무스트레스가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58.3%는 의사직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지위인식이 낮다고 답한 의사들일수록 의사직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낮아, 전문직에 걸맞는 사회적인 보상이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고 의사들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분석결과는 대체로 단변량 분석과 유사하였으며 일관된 모형을 형성하고 있었다.